

제426회 국회
(임시회)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6월18일(수)

장 소 제3회의장(245호)

의사일정

- 위원장 선임의 건
- 간사 선임의 건
-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10698)
-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10698)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자료제출요구의 건
-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1
o 위원장(이종배) 인사	2
2. 간사 선임의 건	5
o 간사(김현·배준영) 인사	5
3.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10698)	6
4.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10698)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6
5. 자료제출요구의 건	7

(14시3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국회법 제47조제2항에서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위원장 선임을 위해서 연장자인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선임과 임명동의안 회부 등에 관한 보고사항은 노트북 및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39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종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 법에 따라 위원회에서 후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서 청문회를 원만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 위원님.

○**김현 위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 김현입니다.

지금 사회를 맡고 계신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위원님께서 4선으로서 경륜이 깊고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하시면서 역량을 보여 주셨습니다.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협치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많은 위원님들께서 존경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종배 위원님을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배** 김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면 김현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배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 **위원장(이종배) 인사**

(14시41분)

○**위원장 이종배**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해 국정 수행 능력과 도덕성, 책임성 등을 사전에 검증해서 그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확인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공직후보자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각부를 통할하여 국정 운영의 기틀을 세워 나가는 데 있어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될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후보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데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성심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회의이니만큼 위원님들 상호 간에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오른쪽에 계시는 김현 위원님께서 인사하시고 나서 양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을 국회의원 김현입니다.

2025년 6월에 있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나라의 명운이 달려 있고 그리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청문회인 만큼 여야가 원활하게 협조해서 이를 동안 진행되는 청문회에서 정책 검증과 아울러서 도덕성 검증을 해내서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서 과연 적임한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배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 배준영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인사청문회입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정책적 역량이 있는지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이 있는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충실히 최선을 다해서 검증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배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균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위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박균택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곽규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 부산 서구동구 곽규택 국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김민석 후보가 총리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있는지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종배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 12·3 내란으로, 다시 나라의 혼란을 수습하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아마 새 정부의 첫 번째 인사청문회라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대가 있을 거고 또 제대로 국회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들도 있다고 봅니다. 함께 정책 검증하고 제대로 준비하는 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배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위원 안녕하세요?

부산 연제구의 김희정입니다.

먼저 인사청문회가 정권 바뀌고 나서 처음 치러지는 만큼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합심해서 정책 검증이나 또는 자질 검증, 도덕성 검증에 여야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말보다는 증거 또는 주장보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여러 가지 자료제출요구의 건이나 증인채택 요구에 인사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선후배 위원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배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기 위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정 국회의원 전용기입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배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진우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해운대갑 주진우 위원입니다.

인사 검증에는 당과 소속이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잘 검증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현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이번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도 없이 이렇게 시작한 정부입니다. 내각 구성도 빨리해야 되고요 국정 공백 최소화 그리고 지난 12월 3일 계엄 이후로 혼란된 이런 국정을 수습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검증도 필요하고 자료 요구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눈높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정 능력, 비전, 정책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하 위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장님께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를 아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번번이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이런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서의 정책 역량, 자질 또 도덕성에 대해서 잘 검증을 하면서도 인사청문회 본연의 역할에 어긋남이 없도록 국민들이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짜증 섞인 비판이 나오지 않는 품격 높은 인사청문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배 감사합니다.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으로 가장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이종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여야의 입장이 바뀌면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자세도 조금씩 바뀌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고자 하는 김민석이라고 하는 이 정치인은 정치인의 눈으로 보면 그 어떤 사람보다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고 그 파란만장한 삶이라고 하는 가운데 공부하기를 계을리하지 않았고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계을리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세계의 질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언제 쓰여질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내가 익혀 왔던 것들을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아마 그 기간을 기다려 주셔서 다시 정치의 길로 국민들이 불러내 주셨고요.

지금 사실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민생도 바닥인 상황이고 그리고 내란을 회복해 가는 과정도,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굉장히 큰 과제들이 있지요. 그런 가운데서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사실 자기를 돌아보면 완벽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이 원하는 그 사람인가에 집중해서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충실히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위원님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명호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등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겸무 직원들이 우리 특위 회의를 지원하게 됩니다.

직원들은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꺼번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4시50분)

○**위원장 이종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례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위원님, 국민의힘 배준영 위원님을 각각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현 위원님과 배준영 위원님이 각각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김현·배준영) 인사

○위원장 이종배 선임된 간사님들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김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위원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고 차질 없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께도 함께 협조 당부드리고 여당 위원님들께도 함께 이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배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간사이신 배준영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배준영 간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장님과 여야 위원님들을 모시고 원만하고 차질 없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배 감사합니다.

3.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10698)

4.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10698)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4시52분)

○위원장 이종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4 항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이상 2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0일 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헌법 제86조제1항에 따라서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이 안건은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및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교섭단체 간사 위원으로 내정된 분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마련했습니다.

실시계획서(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6월 24일·25일 양일간 실시하고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는 추후에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 진행은 첫째 날에는 국무총리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들은 후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둘째 날에는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 등을 실시한 후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르면 서면질의는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공직후보자에게 송달되도록 하고 구두질의는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직후보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서면질의서는 6월 19일, 내일 목요일 오후 17시까지, 구두질의서는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행정실을 통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의 질의 중 음성·음향 출력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되 사전에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의 양해 및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그 밖의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자료제출요구의 건

(14시55분)

○위원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자료제출요구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에 의한 자료 요구의 경우 각 의원실로부터 요구서를 취합한 결과 모두 107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는 6월 22일 일요일 16시까지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결한 자료 이외에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하되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목록을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 명의로 해당 기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하여 청문 일정을 다소 촉박하게 잡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후보자 및 자료제출 대상 기관은 청문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중에는 후보자 외에도 후보자 검증과 관련된 분들의 개인정보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해 주지 않으시는 경우 내실 있는 청문회를 기하기 어렵습니다. 후보자 및 관계자분들께서는 적극적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가 국무총리후보자 검증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 중 부득이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답변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직접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가 좀 더 필요하므로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예, 말씀하시지요.

○**배준영 위원** 배준영 간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야 합의로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게 첫 전체회의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만 후보자 검증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여당의 반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자격과 도덕성 모두를 검증하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의 높은 도덕성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증을 책임질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증인과 참고인들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 명단은 지금까지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출석이 필요한 인물들입니다. 또 저희가 요청하는 증인들은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직전 정부의 대통령, 국무위원과 심지어는 우리 당 대통령후보에 이르기까지 이번 인사청문회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을 대거 증인 리스트에 포함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물타기용 증인 리스트이자 이번 인사청문회를 후보자 검증이 아닌 전 정부 훔집 내기로 채우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국민의힘 간사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모두 해소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증인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기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깐.....

○**김현 위원** 제가..... 잠깐만요.

○**위원장 이종배** 말씀하시겠습니까?

김현 위원님.

○**김현 위원** 직전까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야당 간사가 잘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의사진행발언에서 30초도 지나지 않아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회의가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좀 주의를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서 저희가 이 회의 직전에 여야 간사와 위원장과 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정회를 통해서 더 논의를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배준영 간사의 지금 증인·참고인이 여당의 반대 그다음에 여당의 인사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놓고 물타기용이다라는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는 점에 매우 우려를 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배준영 간사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직전에 협조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후에 정회하고 나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증인·참고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야당 측의 증인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면 불편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

서 비공개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깡그리 무시하고 언론이 있는 앞에서 또는 국민들이 전체가 보는 앞에서 정치 공세 내지는 폄훼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간사 간에는 적어도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 진행에 대한 원칙이라고 할까요, 이번 청문회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좀 잡아 주셨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이거랑 비슷한 얘기 아니시고요?

○전용기 위원 더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예.

○전용기 위원 그래도 반드시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화성정의 전용기입니다.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분명히 물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존경하는 주진우 위원님 말씀처럼 여야가 없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고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동의하는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 간의 증인·참고인 협의가 저는 신속하게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다음 회의에는 충분히 부를 수 있게끔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무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 지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데……

여러 가지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전 배우자를 부르는 부분, 저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전 배우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는 남입니다. 그런데 그 남까지 인사청문위원회의 증인으로 불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묻고 답변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흡집 내기 용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남이 된 그 사람들의 기본권까지 제한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가족에 대한 부분은 굳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모든 흡집 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다 동원된 이런 인사청문회는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원만하게 해당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 이종배 예, 뭐……

○곽규택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예.

○곽규택 위원 전 배우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언론에서도 다 아시듯이 김민석 후보가 아들의 그런 고액 유학 경비, 미국에서의 생활비 이런 것을 어떻게 충당을 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전 배우자가 다 일임해서 비용을 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외국 대학의 학비라든지 생활자금은 신고된 하나의 외환계

좌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환계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면 거기에서 송금한 것이 확인되면 전처, 전 배우자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채택했다가도 철회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하고 만약에 증인신문 하기 전까지 자료가 제출되면 증인은 철회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민주당 쪽에서는 좀 줄여 보려고 하시는데 아시듯이 금전소비대차 계약만 하더라도 같은 형식의 그런 계약서를 가지고 같은 날 9명이 동시에 계약을 맺지요. 그렇다면 그 9명을 동시에 불러 가지고 대출 경위가 어떤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중에서 뭐 한두 명만 불러 보겠다 하는 것은 그 한두 명의 미리 짜맞춘 변명만을 듣기 위한 것은 아니겠지요.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증인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는 최소화했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신청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배 이제 그만하시지요.

○김현 위원 의사진행은 위원장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여야 위원들께 하는 게 아니니까……

○채현일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배 말씀하시지요.

채현일 위원님.

○채현일 위원 배준영 간사님이 말씀하신 자격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게 청문회의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인사청문회도 한도가 있고 선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역대 청문회에서 가족을 이렇게 증인 신청한 경우는 제가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선을 지켜야지요. 그리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무리 유능하고 청렴하고 평판이 있다 하더라도 청문회 후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공직을 거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청문회 무용론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가족들을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부르고 그러면 잘못된 선례, 이것도 결국은 저희 국회의 권위와 또 국민의 신뢰에 배반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아까 얘기했듯이 김민석 후보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기되는 모든 신상 질문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답하겠다. 지금 후보께서는 아마 페이스북으로 아니면 또 기자회견으로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나 후보 본인에 대한 어떤 신상이나 정책 검증은 청문회 때 후보자에게 직접 물어보면 되는 거지 이걸 가족이나 이런 식으로 확산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불신을 자초하거나 또 이런 네거티브로 가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청문회 위원들이 그 부분으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종배 증인·참고인 양 교섭단체에서 제출하셨던 분들이 처음에는 많았었는데 상당히 그래도 많이 줍혀지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건 간사님들 통해서 저희가 거의 다 그 취지는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희정 위원** 위원장님, 저도 발언……

○**위원장 이종배**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희정 위원님 하시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지요.

○**김희정 위원** 청문회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배준영 간사가 처음부터 굉장히 양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쪽에서는 보다 충실한 청문회를 위해서 워낙 제기된 의혹이 많다 보니 최소한 3일 정도 청문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이를 해 왔는데 받았어요.

잘 아시다시피 김현 간사님은 과방위 간사를 하셔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전 숙 방통위원장후보 3일 하고 현장검증까지 해서 4일씩이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고 KBS 사장도 인사청문회 3일을 이미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서. 그리고 국무총리도 우리가 황교안 국무총리 때 이미 또 3일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선례가 있고 상당한 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일을 원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견 없이 합의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료나 증인에 있어서 충분하게 협조가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로 서로 에너지 소모하지 말고 그냥 증빙된 자료로 답을 하면 됩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폐북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주장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증거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건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뭐 여야 합의가 안 됐네, 개인정보 제공이 아직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했던 90여 건 이상의 자료 중에서 단 2건밖에 안 왔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여야 합의를 한 만큼 충실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신청도 역시 여기 연장선상에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자꾸 가족을 언급하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여당 간사에게 요청했던 안에는 가족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지 자금 흐름 그리고 계좌 거래, 출입국 기록 등 이런 것과 연동해서 증명할 수 있는 증인에 대한 최소한의 요청을 했었고 특히 쪼개기 후원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마당에 그중에서 가장, 어떤 특정 한 명만 부르겠다라고 여당이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날짜에 비슷한 방식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같이 와야지 이게 완결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무슨 가족 때문에 증인 신청이 합의가 안 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 최종안에는 가족이 들어 있지 않고 이런 불법정치자금 의혹과 관련된 것을 할 수 있는 증인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정회하는 게 다시 회의를 잡지 못하고 그냥 공전하는 게 아니라 여야 간사가 만나서 인사청문회를 이틀이라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합의를 해서 빨리 오늘 밤이든 내일이든 우리가 다시 모여서 증인 채택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이렇게 정회하는 게 증인 신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촉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배** 위원님들 말씀은 여기까지 듣기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야 간사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정이라든지 또는 자료제출 건이라든지 잘 협의가 되어 왔고 다만 증인·참고인 문제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좁혀졌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조금 더 노력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 간사님들께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는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되면 속개 시간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12인)

곽규택 김현 김희정 박군택 배준영 오기형 이종배 전용기 주진우 채현일
한정애 황운하

○첨가 위원(1인)

박선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전문위원 최기도